



2026 VISION

흔흔한 구역, 함께 키우는 아이들

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[천도서 4장 9절]

충일교회

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충일교회 가정사역부

말씀

우리는 살다 보면 “한 번 실패했으니 끝난 것 아닐까?”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시험에서 한 번 크게 미끄러졌을 때,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,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.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고, 그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.

이스라엘은 이미 아이 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,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싸우려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. 분위기는 무너졌고,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. “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.”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를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,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세워 주십니다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온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. 매복을 두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친히 알려 주십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단순히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,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었다는 점입니다.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,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합니다. 실패 이후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“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”는 사실이었습니다.

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.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,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실패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,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 됩시다!

충일교회 가정사역부

예배 순서

사도신경 다같이

찬송 공감하시네 다같이

말씀봉독 여호수아 8:1~9절 다같이

설교 다시 일어나는 용기,
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설교자

말씀나눔 다같이

합심기도 다같이

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기도문 다같이

★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양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우리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옵소서.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,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.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 전투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
2. 최근 내가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며,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의지할 수 있을까요?